

초등 영재교육의 방법

具永喆(광주 유안초교 연구부장)

I. 들어가며

지난 3년간 광주광역시 유안초등학교¹⁾에 근무하면서 ‘초등학교에서 영재심화학습 프로그램 시행 연구’라는 주제로, 초등학교에서 영재교육의 목적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영재학생을 선발하고,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실행 과제를 가지고 초등학교 현장에서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증해 보았다. 당시 초등학교에서 영재교육이 국가적으로 처음 시도되었고, 영재담당 지도교사들의 연수나 사전 경험이 부족하여 각계의 우려가 매우 높았다. 또한 학부모들은 영재학급에 자녀가 일단 들어가야 자녀의 기가 죽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에 영재교육의 목적이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기보다는 영재학생의 선발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3년간 영재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학부모들은 영재교육의 연수와 간담회를 통해 자녀에 비추어 영재들의 특성과 프로그램의 목적, 그리고 선발 방법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학부모간의 위화감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초등 영재교육의 목표는 다양한 영역에서 잠재적인 영재성을 지닌 학생을 발굴하여 그들의 자아실현은 물론 국가 인재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심성을 기르는데 있다. 즉 천부적으로 타고난 인재(人才)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와 국가의 동량으로서 인재(人材)를 길러내는 국가적 당위성을 갖는다. 따라서 영재교육은 선수학습이나 학업성취의 향상보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해내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사회공동체 의식과 올바른 사회 가치관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지금까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IQ가 높거나 성적이 우수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기존의 개념, 이론을 뒤엎을 정도의 새로운 발견이나 발명을 하여 인간 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특성으로 Renzulli(1997)는 평균 이상의 능력, 창의성, 과제집착력을 든다. 이 중에서 능력은 안

1) 지난 3년간 경기도 장곡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신방학중학교와 더불어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영재교육 정책연구를 추진하였음(2001. 3. ~ 2004. 2).

정되고 별로 변화가 없지만, 나머지 두 요인 즉, 창의성과 과제 집착력은 환경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변화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능력이 어느 정도 우수한 학생을 조기에 선발하여 그들의 창의성과 과제 집착력을 길러 줌으로써, 창의적·생산적 영재성을 발휘케 해주어야 한다. 창의적 생산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억력도 필요하지만, 즉각적으로 답이 떠오르지 않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서도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 개방적이고 독창적인 사고가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교실을 돌아보면 지적 호기심이 뛰어나고, 개방적이고 독창적 사고력을 지닌 학생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학생을 추천해 영재선발 단계의 과정에서 차별하고 정돈된 답안을 작성하지 않아 영재교육대상자가 되지 못하거나, 비록 영재교육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과제나 산출물을 하는 과정에서 매우 실망스런 경우를 접한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영재학생들을 선발하는 방법의 문제일까? 교사의 기존 교수 방식을 탈피하지 못한 원인일까? 아니면 겉으로 보기엔 영재라고 느끼지만 영재성을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모순 투성이냐 그 학생의 본 모습일까? 늘 궁금해진다.

그렇다면 초등학교에서 영재들에게 어떤 영역을 가르치는 것이 타당할까? 전인육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고, 학습되어야 하지만 주로 수학과 과학 분야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다. 과학 기술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 없지만,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기술 이상으로 인문 사회와 예술 분야 등 다양한 재능도 같이 발휘되어야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이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영재교육 연구학교 및 지역공동 영재학급 운영 경험과 미국 코네티컷 대학의 영재교육 세미나, 영재교육원 프로그램 분석, 영재학생과 학부모의 면담 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초등학교의 영재교육 운영 형태 특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 영재교육 개선 방향과 행정적 지원책 등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II. 초등 영재교육 운영 형태와 특징

현재 초등 영재교육은 광주광역시 유안초등학교 1~2차년도 운영과 경기도 안산시의 장곡초등학교 운영 형태인 단위학교 영재학급, 유안초등학교 3차년도의 지역공동 영재학급, 시·도 교육청중심의 영재교육원, 일반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등 네 가지 형태로 축약될 수 있다. 이런 네 가지 형태는 각각 교육기관의 여건에 따라 운영 특징과 장점, 그리고 문제점을 지닌다. 지난 3년간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영재교육 정책

연구학교 운영보고서와 지도교사, 영재교육 대상 학생, 학부모의 면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²⁾는 <표 1>과 같다.

<표 1> 초등학교 영재교육 운영 형태와 특징

구 분	단위학교 영재학급	지역공동 영재학급	교육청 영재교육원	일반대학교 영재교육원
선발 대상	단위학교 대상학년 전체	지역공동 협력학교 대상학년 전체	지역교육청 산하 지구별 대상학년 전체	시·도 대상학년 전체
선발학생 수	3~6학년 171명	4~6학년 60명	5~6학년 240명	5~6학년 40명
비율(광주)	대상학년 15%	대상학년 2%	대상학년 0.65%	0.09%
선발방법	영역별 선발과 다단계 선발 병행	다단계선발	다단계선발	다단계선발
집단편성	학급당 20명내외	학급당 20명 이내	학급당 20명 이내	학급당 20명 이내
운영시간	정규교육과정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시간 연 64시간 내외	주중 방과후와 주말 96시간 내외	방학 180시간내외	방학과 주말 128시간 내외

2) <표 1>안의 대상학년 비율은 2002년 기준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학생 135,584명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구 분	단위학교 영재학급	지역공동 영재학급	교육청 영재교육원	일반대학교 영재교육원
담당교육자	교내 교사	교내 교사와 협력학교 교사	교육청 산하 지도희망 교사	대학 교수
프로그램	KEDI의 심화학습 프로그램과 학교 자체 개발프로그램	KEDI의 심화학습 프로그램과 학교 자체 개발프로그램	KEDI의 심화학습 프로그램과 교육청 개발 프로그램	대학영재교육원 개발프로그램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 영재학생 발굴 가능 · 많은 학생들에게 영재교육기회제공 · 영재학생들의 수업 부담 최소화 · 다양한 영재선발 방법 적용가능 · 영재선발 절차 및 방법 간소 · 영재선발과정의 불안감 최소화 · 다양한 영역의 심화 학습 프로그램 설치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준 높은 영재학생 발굴 가능 · 영재교육에 대한 지역 홍보 효과 · 학교간의 선의의 경쟁 강화 · 지도 교사 인적자원 확보 용이 · 영재교육에 대한 위화감 완화 · 팀티칭제를 통한 모델별 지도 · 방학중 특별 프로그램 운영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수준 높은 영재학생 발굴 가능 · 영재교육에 대한 교육청 수준 홍보 효과 · 영재교육에 대한 위화감 해소 · 학교간의 선의의 경쟁 강화 · 방과후 학원활동 선택 용이 · 과학과 수학 병행수업에 다양한 프로그램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 수준의 영재학생 발굴 가능 · 대학 수준 영재교육 홍보 효과 · 영재교육에 대한 위화감 해소 · 방학동안 집중교육과 주말, 사이버 교육 보완 · 풍부한 자료 활용 가능 · 대학 도서관 및 시설 활용 용이 · 예산 확보와 지원 용이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학급 학생 및 학부모와 위화감 발생 · 일반학급 지도교사의 사기 저하 · 학생간의 수준차 심함 · 교육과정 이중 운영 복잡성 · 교직원간의 협력체제 어려움 · 영재학생들의 예체능 활동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학생 선발에 따른 학교 우열감 표출 · 학사 행정의 협력학교간 통일적 운영 어려움 · 학생들의 이동에 따른 안전지도 어려움 · 학생간의 협동심 약함 · 방과후 학원 및 과외학습과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학생 이동에 따른 안전지도 어려움 · 선발시험 응시자 학교별 할당에 따른 선발 초기 단계의 어려움 · 영재 추천에 따른 학부모의 불신초래 · 선발 감독과 시험유출 예방에 따른 행정업무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학생 이동에 따른 안전지도 어려움 · 선발시험 응시자 학교별 할당에 따른 선발 초기 단계의 어려움 · 학생간의 협동심 약함 · 학생간의 수준차 심함 · 사이버지도상의 문제점 초래

Ⅲ. 초등 영재교육 운영 방법의 개선방향

1. 초등 영재교육의 목표

우리 나라의 헌법 제 31조 제 1항에 명시된 ‘능력에 따른 교육의 기회 균등’의 권리는 교육의 이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 초등 영재교육의 기준을 설정하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것은 영재학생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교육’이 아니라, 그들의 잠재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질적 기회 균등’의 장을 국가가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소의 필수 교육이 평등(equality)의 이념을 강조한다면,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교육은 공평(equity)의 이념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³⁾ 교육 수요자의 요구가 다양하게 분출할 것으로 예견되는 미래 사회에서는 기계적인 평등 논리보다는 학습자의 개인차를 인정하는 공평의 논리가 더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개인차를 반영하는 교육은 교육 공급자의 관점이 아니라 교육 수요자인, 영재학생의 입장에서 교육을 생각하는 것이며, 이는 영재 학생의 능력, 요구 수준, 특성 등에 맞추어 가장 합당한 교육적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영재학생들의 능력이나 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지식 주입식의 전통적인 교육과정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재 학생 스스로 문제해결과 탐구를 위한 과제를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고 다양한 문제해결력과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초등 영재교육은 어린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잘 이해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해 나감에 따라 성장하는 정신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두어야 하며, 그것은 영재학생들에게 새로운 질문을 갖게 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추구함으로써 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키며, 또한 주변의 의미있는 현상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김중순, 2001, 재인용).

초등 영재교육의 목표는 국가적, 사회적 측면의 당위성도 중요하지만 어릴 때부터 탁월한 잠재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재능분야를 계발시켜 줌으로써 자기성취를 최대한 이룰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따라서 영재성을 갖는 어린 꿈나무들에게 직접적인 체험활동과 학교 경험 속에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찾아 탐구 과제를 설정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해결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시켜주는데 있어야 한다.

3) 광주광역시교육청(2001),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Ⅰ) 총론, 재량활동’ pp. 18-19.

2. 초등 영재 학생의 선발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은 각 영재교육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잠재성이나 특성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초등 영재교육을 실시하려는 기관이 선발의 주체가 되어 각 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목적, 그 수준 및 방법을 설정한 후 영재를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영곤, 2003).

지금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한 시행령에 따른 영재선발 절차는 각 영재교육 기관에서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전형공고를 하고,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학 중인 학교장, 지도 교사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영재교육 관련기관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영재교육기관장에게 제출한다. 이어 각 영재교육기관별로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방법과 전형 절차를 거쳐 영재학생을 선발한다. 최종 선발된 학생들을 교육감에게 추천하고, 교육감은 시·도 영재교육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가. 평등성(equality)에 기인한 영재선발의 문제점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의 학생 선발은 다단계에 의한 공정한 영재선발에 초점을 두어 왔다. 제 1단계는 학부모와 교사, 학교장 추천으로, 2단계는 객관적 검사도구인 지능검사를, 3단계에서는 창의적 문제해결력검사를, 4단계에서는 과제수행능력이나 산출물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흥미도나 면담을 통해 영재학급에 정치하였으나 선발 과정에서 검사 도구의 사전 유출 문제로 지능검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선발 과정은 일시적이고 지속적인 판별이 되지 못한다. 특히 지역공동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은 짧은 시간에 영재학생을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 중에 소수 영재학생을 선발하는 일은 합리적이기보다는 평등성(equality)에 치중한다. 또한 몇 시간 동안 일회적으로 영재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나 불안이 증대되어 평상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며, 표현기법이 부족한 학생들은 과제수행능력이나 산출물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여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되지 못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판별과 관찰을 통해 영재성있는 학생을 합리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영재학생들의 선발은 학생들의 영재학습에 대한 선경험과 학부모의 관심도가 결정한다. 지역공동 영재학급을 운영한 광주 유안초등학교 영재교육대상자의 학교별 비율을 보면 4개 학교 대상 학생중에 영재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은 학생들이나 비록 영재교육을 받지 못하였지만 학부모의 관심이 높아 과제해결력이나 산출물 보고서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표 2>와 같이 영재학급에 선발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2> 유안초등학교 지역공동 영재학급 선발 학년·학교·학생 수⁴⁾

구분	수학영역				과학영역				계	비율(%)
	A학교	B학교	C학교	D학교	A학교	B학교	C학교	D학교		
4학년	9	1		10					20	2%
5학년					8	4	2	6	20	2%
6학년	12	1	1	6					20	2%
계	21	2	1	16	8	4	2	6	60	2%
(비율)	(52.5%)	(5%)	(2.5%)	(40%)	(40%)	(20%)	(10%)	(30%)		

한편, 학부모들은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에 대한 합리적 판별보다 평등성(equality)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며, 영재학생 선발의 기회 균등을 강조한다. 일단 담임교사로부터 자녀가 추천받지 못하면 학급경영에 대한 교사 불신을 제기하며, 영재선발 시험에 대한 정보 입수와 교환, 나아가 영재선발 시험준비를 위한 특별과외를 시키기도 한다. 또한 학부모들은 교실 현장에서 열성적인 학부모의 지원을 받는 학생들은 교사에 의해 쉽게 추천이 이루어져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만 학부모의 교육열이 낮아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이 낮은 학부모의 학생들은 교사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추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러나 교사 추천에 의해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들은 어떤 다른 영역에서 선발된 학생들보다 영재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잠재적 능력 제발에 게을리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나. 교사 추천 지명에 의한 영재학생 선발 고려

초등학교에서 영재 선발은 평등성(equality)에 기인한 객관적 도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선발 과정에서 지능 검사의 마킹 오류나 시간 부족, 긴장 등의 문제점과 영재적 특성이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 점을 감안한다면 객관적 도구와 주관적 도구인 교사 추천(equity)⁶⁾을 병행하여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Renzulli(1997)는 학교전체 심화모형의 영재선발 과정에서 객관적 도구와 주관적 도구

4) 유안초등학교 영재교육 연구보고서(2003), p. 38. 일반 인근 학교에 비해 A학교는 영재교육 연구학교를 지난 2년간 실시해 왔던 학교이며, D학교는 인근에서 학부모의 관심과 교육열이 가장 높은 학교로 인식되어 있다.

5) 유안초등학교 영재교육 연구보고서(2002), pp. 64-65.

6) 경기 장곡초등학교(2003)는 집단지능검사, 담임추천, 문제해결력검사, 프로그램 참가일지 등의 단계를 거쳐 학년의 10%를 선발하였으며, 한 달 동안의 지속적인 프로그램 참가 관찰 결과가선발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는 점과 부산 가야초등학교(2001)의 '영재학습의 날' 재량활동 프로그램 운영에서 담임 교사 추천으로 영역별 영재반 편성을 하였다는 점에서 주관적 준거를 중시하고 있다고 본다.

의 조화를 강조한다. 일반 학생들 가운데 15% 정도의 잠재적 영재 학생을 선발하되, 검사 점수에 의한 지명으로 전체 영재 학생의 50%를, 교사나 전문가, 학부모의 추천에 의해 50%를 선발한다. 전자의 학생들은 현재 담임 교사나 학부모, 또는 학생 자신이 추천하거나, 창의적 잠재력이나 생산성 검사, 학업 행동에 관한 정보와 같은 준거를 통해 선발되며, 후자의 학생들은 표준화 검사에서 92% 백분위 이상의 성적을 보이는 자를 선발한다. 이는 선발시험을 거치지 않고 교사 추천만으로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교육의 공평성(equity)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초등 영재선발은 학부모의 높은 관심과 평등성을 고려하여 대상학년 3~5%학생들에게 영재학생을 선발하되, 담임 교사나 전문가 추천으로 20%를 추천 지명하고, 나머지 80%를 객관적 도구에 의한 선발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교사는 4년 내외로 단위학교에 근무하면서 학생들의 행동 특성이나 잠재성을 관찰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되어 있다. 따라서 담임 교사가 다른 학생에 비해 영재교육기관이 시행할 분야의 프로그램에 우수한 능력을 가지는 학생은 선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영재교육대상자로 지명되도록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단계 선발 과정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 학부모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담임 교사의 추천 양식⁷⁾은 <표 3>과 같이 추천 학생의 일반 사항이나 행동 특성, 흥미영역, 추천 사유 등을 자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다만 학부모의 평등성에 대한 논쟁을 최소화하면서도 극소수의 영재를 우선 발굴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이해와 영재학생의 특성에 대한 교사 연수가 요구되며, 영재교육기관별 영재심사추천심사위원회에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영재교육대상자 집단 구성을 도식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영재교육대상자 집단 구성

영재교육대상자의 약 20%	1단계	교사나 전문가 추천	일반학생의 3~5%내외로 구성된 영재학급
영재교육대상자의 약 80%	2단계	지능 검사	
	3단계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4단계	과제수행능력 검사 (한 달 정도 지속적 관찰)	
	5단계	면담 및 정치	

7) Renzulli & Reis(1997), *The schoolwide enrichment model; a how to guide for educational excellence*. Mansfield Center, CT: Creative Learning Press, Inc.. p. 61. 심화학습모형 프로그램의 교사 추천 양식(Teacher Nomination Form for SEM Program)을 재구성한 것이다.

3. 초등 영재교육의 시간 운영

초등 영재교육은 주로 정규교육과정의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시간⁸⁾, 방과후나 주말⁹⁾, 방학동안¹⁰⁾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나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영재교육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영재학급을 둔 중심학교를 선정하고 인근 협력 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면서 방과후나 방학을 이용하여 지역공동 영재학급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 형태와 관계 없이 방학을 이용한 집중교육이나 캠프 운영, 주중이나 주말의 출석, 사이버 학습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가. 지역공동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 운영에 따른 문제점

영재교육의 운영 형태에 따라 여러 문제점을 앞에서 지적했듯이 현재의 지역공동 영재학급 운영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지역공동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 모두가 학생들 스스로 중심학교나 영재학급 학교로 이동하는데 따른 시간 소비와 안전사고의 문제를 야기한다. 초등학생들이 영재교육을 받기 위해 30분 전후의 시간을 소요하고 있으며, 어떤 학생들은 이동에 따른 부모의 교통 지원을 받고 있으나 많은 학생들은 혼자 이동해야 하고, 그에 따른 안전사고나 예상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지역공동 영재학급 운영은 인근 지역 학교간의 학사 일정에 보조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늘 상존한다는 점이다. 학교간의 소풍이나 운동회, 방과후 학교 행사 등 학교간에 보조를 맞추기 어려운 일로 인해 영재학급 학생들의 결석이 발생하고, 수업 일정을 재조정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는 점이다.

셋째, 영재학생들의 지적 호기심과 탐구심은 꼭 수업 중에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언제나 선생님과 만나 호기심을 채우고,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하는데 사이버상이나 메일 교환은 표현상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¹¹⁾ 즉시적 지도가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넷째, 영재학생들간의 친화력이나 협동심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영재교육의 초기에는 모둠별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협력학교 학생들의 발표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여름방학 영재캠프를 다녀온 후에 영재학급 학생간에 협동심과 친화력을 생겼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였다는 것이다.¹²⁾

8) 장곡초등학교 영재교육 연구보고서(2003). pp. 194-198.

9) 유안초등학교 영재교육 연구보고서(2003). p. 58.

10) 광주광역시교육청 영재교육원 시행지침과 전남대학교 영재교육 운영 안내 참조.

11) 전남대학교 영재교육원 초등 수학영역 영재교육대상자인 6학년 박준하, 박준민 학생과 학부모의 면담 결과이다.

다섯째, 학교간의 우열을 상징하는 잣대¹³⁾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지역공동 영재학급 교육대상자들은 학교별 우열에 대한 간접 비교로 이용되며, 학부모들은 학교 실력이나 명예와 관련지어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간 할당제에 의해 영재학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여섯째, 지역공동 영재학급 운영이 수요일 방과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직원간의 친목행사나 건강의 날 운영에 거의 참여하지 못한다¹⁴⁾는 점이다.

나. 단위학교 영재학급 운영으로 전환

영재교육의 활성화와 정착단계에 접어들면 지역공동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보다는 단위학교 영재학급 운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영재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어느 곳에서 교육을 받은 잠재적 영재성을 갖는 학생을 발굴하여 자기성취를 최대한 발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있다.

영재교육의 초기 단계에서는 단위학교 학부모 혹은 학생간의 위화감¹⁵⁾을 줄이기 위해 지역공동 영재학급 운영을 권장하였다. 그러나 영재교육의 본질을 살리고 학교 업무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36학급 이상의 학교는 한 학급 이상 영재학급을 두어 재량활동이나 계발활동 시간을 할애하여 한 학기 동안 한 가지 이상의 탐구 주제를 가지고 미래 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영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매주 토요일은 '주제 탐구의 날'로 정하여 재량활동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흥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 학습이 이루어질 수 하며, 매우 우수한 학생들은 심화영재학급을 편성하여 주중 방과후에 주 2시간씩 지속적인 과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학사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모든 학생들의 잠재성을 계발해 주어야 할 것이다¹⁶⁾. 또한 소규모 학교나 농어촌 지역의 학교는 상호 협력적 체계를 바탕으로 주중 하루를 '영재교육의 날'로 정하여 인근 학교 학생들에게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2) 유안초등학교 영재교육 연구보고서(2003), p. 70.

13) 지역공동 영재학급 영재선정추천심사위원회와 광주영재교육진흥위원회에서 영재선발에 관한 협의회에서 제기된 내용이다.

14) 유안초등학교 영재교육 소감록(2003), p. 77.

15) 유안초등학교 영재교육 연구보고서(2001), p. 86.

16) 경기도 장곡초등학교(2003)는 토요일을 '주제학습의 날'로 영재기초교육을 실시하였고, 목요일 방과후는 수학, 과학, 정보중심의 영재심화학급을 운영하여 영재학생들의 자기주도의 프로젝트 학습을 권장하였다. 부산가야초등학교(2002)는 학년별 재량활동을 이용하여 '영재학습의 날' 운영을 통해 언어,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정보 등의 영역별 영재학급을 운영하였다.

4. 초등 영재교육의 프로그램

가. 초등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원칙

초등영재교육 프로그램은 학생의 능력, 흥미, 학습 방식 등을 고려하여 차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창의적인 문제해결력과 과제집착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영재들은 일반적으로 일반 아동보다 대단히 높고, 흥미가 다양하고, 전문적이며 독특하다. 관심 있는 주제나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미 학습한 개념들 간의 관계를 개념화하고, 더욱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문제해결에 적용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그들의 심리적 특성을 신장시켜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할 때, 다음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조석희, 1996)

- (가) 광범위한 이슈, 문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한다.
- (나) 다양한 학문분야를 통합한다.
- (다) 하나의 학습 영역에 종합적이며, 상호 관련되며 강화하는 경험을 제시한다.
- (라) 스스로 선택한 주제를 깊이 있게 학습하도록 허용한다.
- (마) 연구 기능과 방법을 숙달하여 연구 능력을 계발시킨다.
- (바) 개방적인 과제에 초점을 맞춘다.
- (사) 생산적이고 복잡하며, 추상적이며 고급한 사고기능을 계발시킨다.
- (아)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고 사용하며, 스스로 결정하며,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도록 격려한다.
- (자) 기존의 아이디어에 도전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산출물을 만들어 내도록 격려한다.
- (차) 새로운 기법, 자료, 형태를 활용한 산출물을 만들어 내도록 격려한다.
- (카) 자기 평가, 준거 평가, 표준화 검사도구 등을 통하여 적절하고 구체적인 준거를 적용하여 학생의 산출물을 평가한다.

나. 초등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특성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원에서 제공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Renzulli의 삼부심화학습 모형'에 근거하여 구성되었다. 삼부심화학습은 다음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소 연속적이지만 질적으로 다른 3단계가 포함되어 있다. 1단계 심화학습은 일반적으로 탐색활동으로서 학생들이 다양한 주제와 관심 영역을 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2단계 심화학습은 집단 훈련활동으로서 연구를 위한 기술들이나 창의성과 같은 인지적, 정의적 과정의 발달을 다루고 있다. 3단계 심화학습은 특정 분야에서 진짜 연구자나 예술가가 수행한 것 같이 실제 문제에 대해 탐구하는 활동이다 (Renzulli & Reis, 1997, p.33).

한 가지 예로서 ‘공룡의 탐구’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과학영역 ‘공룡의 탐구’라는 프로그램은 삼부심화학습 모형을 적용한 것으로 총 6차시(12시간) 활동으로 이루어져 3단계 프로젝트 수행 과정 체제로 구성되었다. 1단계는 ‘탐색하기’로 한반도가 공룡의 천국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 나라도 공룡의 볼모지가 아닌 공룡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라는 점을 알도록 한다. 여러 자료 조사 등을 통하여 공룡 관련 화석을 알아보고 공룡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게 한다. 또한 주변에 공룡화석 발견지, 공룡 박물관 등이 있으면 직접 가보는 활동도 유의하다.

2단계는 ‘이해하기’로 4가지 활동 주제를 통하여 공룡의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주제는 공룡의 생김새를 알아보는 활동으로 공룡의 모습 조각을 맞추고, 공룡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여 공룡의 머리, 몸통, 다리, 꼬리 등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를 알도록 하였다. 두 번째 주제는 공룡의 분류 활동이고, 세 번째 주제는 공룡의 삶에 대한 이해 활동이며, 네 번째 주제는 공룡의 멸종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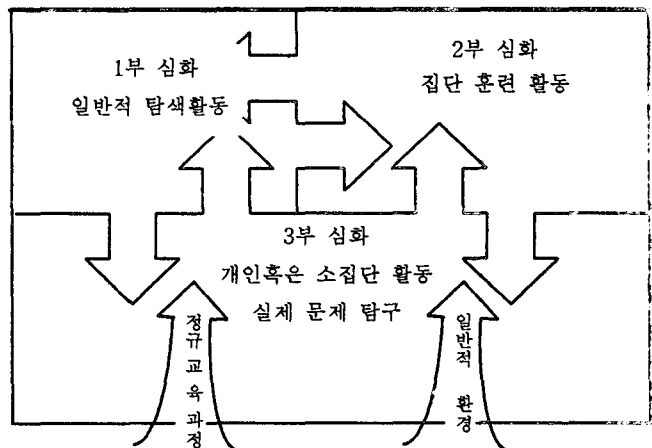
3단계는 ‘산출물 만들기’로 공룡의 모습을 찰흙으로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뼈대를 만들고, 그에 따라 찰흙을 붙여 나가는 활동을 통해 화석 발굴에서 얻어진 여러 자료들이 공룡의 복원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공룡의 특성과 이름을 정하여 공룡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함으로써 스스로 공룡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반성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다. 초등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수학이나 과학에 치중되어 개발되어져 있다. 과학은 삼부심화학습을 적용하여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의 지도가 용이하나 사전 실험을 해야 하는 준비과정과 자료 구입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 반면 수학은 삼부심화학습에 접목시켜 연계적인 지도와 산출물 지도에 어려움을 갖는다.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현장 교사들에게 중요한 자료가 되었지만 몇 가지 문제점¹⁷⁾도 나

[그림 2] Renzulli의 삼부심화학습 모형



타났다. 우선 시·도 교육청에서는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주로 수리 탐구영역에 치중하여 지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공동 영재학급이나 대학교 영재교육원은 수학과 과학 영역이 완전 분리되어 그 영역의 심도있는 내용을 삼부심화 혹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교육청 영재교육원은 수학과 과학 영역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두 가지를 동시에 학습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러나 수학 영역은 수학 학습 활동에서, 과학 영역은 과학 학습 활동 영역에서 끝나게 되어 간학문적 혹은 통합적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또한 영재교육 정책연구 학교에서도 수학과 과학, 정보영역에 국한되어 있어 언어와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등 모든 재능분야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장곡초등학교, 2003; 유안초등학교, 2003).

둘째, 영재학급내의 수준차가 있으나 그 수준차를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이 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개인차가 심하고 성격면에 있어서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여 전체 학습 및 토의, 협동 학습이 어려워 지도에 곤란을 주기도 한다.

셋째는 참고 서적 및 사이트가 제시되어 있어 학습에 많은 도움을 주나, 다수의 사이트가 존재하지 않는 사이트거나, 학습 목표와 거리가 있는 사이트가 다소 있다. 예를 들면 달력에 숨어 있는 규칙 찾기 주제에서 '<http://www.woozan.net/2003calendar/main.html>: 나만의 달력을 만들 수 있는 사이트다'라고 제시되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들어가 보았으나 그 내용을 보면 단순히 모양과 색깔을 달리해서 달력 꾸미는 내용을 학습 목표와 다소 거리가 있다.

넷째, 학습에 필요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으나 대개가 일선에서 구하기 쉽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구입하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제 때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패턴블럭, 펜토미노를 그 예로 들 수 있는 데, 구입처까지 제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으나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라. 간학문적 초등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초등 영재교육은 수학이나 과학 등의 특정 학문분야 뿐만 아니라 간학문적 학문 탐구를 포함시킨 종합적으로 계획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예컨대 과학분야의 영재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보다 창의적인 과학영재를 키우기 위하여 과학분야의 교과내용과 인문사회, 예술분야의 교과내용을 적절한 비율로 구성해야 한다. 영재학생이 자신의 잠재능력과 재능을 보다 폭넓게 키워가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분야를 창의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분야에 집중적으로 짜여진 폐쇄적 프로그램의 학습보다는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진정한 초등 영재를 육성해 내는 전략이 될 것이다(박성익외, 2003).

17) 경기 장곡초등학교과 광주 유안초등학교 영재교육 연구학교 운영 합동보고서(2003). p.89, p.222. 유안초등학교 영재교육 소감록(2003), p. 79. 그리고 영재교육을 지도한 교사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협의와 토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소감을 기술한 내용에서 발췌한 것이다.

따라서 간학문적 중심의 초등 영재교육의 프로그램과 운영 방향을 몇 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수리 탐구 영역뿐만 아니라 언어 사회 영역의 영재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특히 언어 사회 영역을 통해 현실 사회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토론하고, 그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미래 공상적 소설을 직접 지어봄으로써 미래 과학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지적·학문적 능력에서 뛰어난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사회발전을 위해 인간이 노력하는 모든 재능분야에서 창의적인 전문가를 길러내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 수학이나 과학 영역으로 제한되어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지도교사가 간학문적 접근을 통해 언어나 사회, 예술 등 다양한 분야와 접목시키는 등 다양한 학습활동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수학이나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와 환경문제를 해결하며, 언어적 지식을 가지고 사회나 미래 문제를 일반 사람들에게 설득력있게 표현하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다양한 학습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영재교육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사간의 협력과 팀티칭 구성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다양한 사고를 발산하고 자극받기를 바라지만 한 명의 지도 교사가 그들의 지적 욕구를 채워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비록 수학이나 과학영역의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과목일지라도 언어나 미술, 음악적 접근이나 학습활동을 조장하여 보다 풍부하고 창의적인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학생 스스로 학습 계획과 목표설정, 내용조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학생중심이자 수준별 교육이 되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교사는 자원인사로서 필요한 경우에 자료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학습촉진을 위한 자원관리자로서 교사는 영재학생에게 추상적으로 복잡한 아이디어를 추구하도록 격려해주고, 고등사고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수준별 학습경험을 선택하고 격려해줌으로써 영재학생들의 능력을 최대한 실현시켜 주는 일을 수행해야 한다.

다섯째,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속진과 심화학습을 병행시키되, 심화학습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 특히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고급수준의 사고기능 즉 탐구기능, 문제해결, 창의적 사고 등의 신장은 물론 자기개발, 도전감, 호기심, 상상력, 대인관계 등도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재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개인연구 프로젝트와 동료 공동 프로젝트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방학이나 주말 영재캠프를 통해 동료의식이나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학교별 혹은 영재교육원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개발하여 학생들이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며, 지역공동 영재학급학생간의 동질성을 갖고 모듈별 혹은 협동 학습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재교육이 시작되는 학기초의 주말을 이용하여 영재캠프를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IV. 나오며

우리는 인재(人才)를 발굴하여 인재(人材)로 기르지 못해 사회의 인재(人災)를 불러오는 경우를 종종 보아 왔다. 초등 영재교육은 잠재력이 풍부한 어린 꿈나무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인재(人材)로서 성장뿐만 아니라 남들과 더불어 좋은 사회 구현을 실현하는데 봉사하는 자세를 갖게 하는 데 있다. 영재학급 안에서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신의 과제만 수행하고, 모둠별 활동에 등한시하는 학생도 있다. 자기만의 지적 호기심과 이익을 채우려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영재학생들은 영재를 지도하는 교사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현재의 열악한 영재교육 여건 속에서 초등 영재교육의 성공을 위해 막연하게 교사의 헌신을 강요할 수 없다. 초등영재교육의 활성화와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일선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영재교육을 지도할 체계적이고 흥미있는 교사 연수가 필요하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원이 주관하여 기본과 심화과정의 연수가 있으며, 시·도교육청별로 수학과 과학 중심의 영재 직무 연수가 실시되고 있으나 연수과정이 수학과 과학으로 나누어 간학문적 영재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초등 영재교육 교사 연수는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통합적, 프로젝트 중심의 직무 연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미국 코네티컷 주립대학이 주관하는 Confratute¹⁸⁾처럼 다양한 강좌를 2주간 개설하여 영재교육 운영에 대한 토의와 친목, 강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역이나 영재교육기관의 특성을 살리는 직무 연수가 되었으면 한다.

둘째, 영재교육 담당 교사들의 인사 관리망 체제가 요구된다. 현재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전보 주기가 4~5년으로 되어 있어 영재교육기관을 떠나게 되면 지속적인 지도가 어려운 실정이다. 영재교육의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영재학생 선발과 도구 개발, 영재교육 지도교사 선정과 조직, 영재학급의 운영 프로그램 구안과 교수 자료 개발 등 업무가 폭증한 데다 일반 업무까지 추진해야 하는 이중적 고통을 가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재학급이 설치된 학교에서 전보만료가 될 경우 유보조치를 하거나 영재학급이 있는 학교로 우선 전보하여야 하고, 인사상 부가점을 주어 영재교육 업무와 지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영재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연수를 교육청 단위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18) 광주광역시교육청 영재교육 담당교원 국외연수 보고서(2003), p.10. 'Confratute' 영재세미나는 코네티컷 대학에서 26년간이나 매년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행사로 Renzulli 교수와 그의 부인 Sally M. Reis 교수가 이끈다. 세미나 명칭인 Confratute는 사전에 나오지 않는 합성어로 '회의'를 뜻하는 conference와 '친교'를 뜻하는 fraternity 및 '강습회'를 뜻하는 institute 합성어로서 회의와 친교와 강습을 겸한 행사이며, 그 성격이 학습적이고, 재미있고, 동료 의식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있다. 영재교육의 성패는 학부모의 협력과 이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재교육의 목적과 프로그램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영재학급에 들어와 속진이나 진학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구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부모들의 올바른 의식 없이는 초등 영재교육의 착근이 어렵기 때문에 영재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연수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넷째, 시·도교육청별로 영재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이나 부서가 개설될 필요가 있겠다. 현재 초등영재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는 교육청별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주로 과학기술인적자원과 초등장학과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교육청이나 교육연수원, 교육과학연구원 등 기관별 영재교육 담당자를 두고 있으나, 매년 업무의 변화와 담당자의 부서 이동으로 인해 체계적인 지도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영재교육의 선발과 프로그램 개발, 교사 연수, 자료망 구축 등 영재교육을 총괄하는 교육청 하위기관이나 부서가 신설되어 영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 하겠다.

다섯째, 초등 영재교육 교사연구회 등 자생적 연구회가 활성화되어 전국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하겠다. 학년말의 영재선발에 대한 도구 개발과 영재프로그램 재구성, 자료 개발 등은 지역 교육청의 수준을 벗어나 전국적으로 교수-학습 자료를 공유하며, 영재담당 교사간의 정보 교환과 세미나 참여 등 자생적 연구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도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광주광역시교육청(2003). "코네티컷 대학의 Confratute" 영재교육담당교원 국외연수 보고서. 광주광역시교육청(2001).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I); 총론, 재량활동. 광주: 해성출판사.
- 광주광역시교육청(2003). 지역공동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지침서.
- 김영곤(2003). '영재교육 정책방향' 영재교육 학부모 특강. 교육인적자원부지정 영재교육 정책연구학교 연수자료, 광주: 유안초등학교.
- 김종순(2001). "프로젝트 활동이 초등학교 학생의 문제해결력 및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영재교육연구 11(2), 1-21.
- 박성익·조석희·김홍원·이지현·윤여홍·진석언·한기순(2003). 영재교육학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 박은영(2000). 체계적인 영재교육을 위한 Renzulli의 전교 심화학습 모형(SEM)의 개선방안. 영재교육연구. 10(2). 1-23.

- 송인섭 · 이신동 · 이경화 · 최병연 · 박숙희 편역(2001). *영재교육의 이론과 방법*. 서울: 학문사.
- 신방학중학교(2003). “자기주도적 학습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영재학급 학생의 창의적 능력 신장”. 교육인적자원부지정 영재교육 정책연구학교 보고서.
- 유안초등학교(2001). “심화학습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초등학교 영재교육의 효율성 연구”. 교육인적자원부지정 영재교육 정책연구학교 보고서.
- 유안초등학교(2002). “초등학교에서 영재심화학습 프로그램 시행 연구”. 교육인적자원부지정 영재교육 정책연구학교 보고서.
- 유안초등학교(2003). “영재심화학습 프로그램을 마치고...” 교육인적자원부지정 영재교육 정책연구학교 소감록.
- 유안초등학교(2003). “초등학교에서 영재심화학습 프로그램 시행 연구”. 교육인적자원부지정 영재교육 정책연구학교 보고서.
- 유안초등학교 · 장곡초등학교 · 신방학중학교(2003).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영재교육 정책연구 학교 운영 합동 보고서.
- 이순옥(2002). “부산가야초등학교 영재학급 운영 실천 사례” 2002학년도 한국영재학회 춘계학술세미나 및 워크샵 프로그램(pp.176-177). 한국영재학회.
- 장곡초등학교(2002). “개인학습 프로그램 구안 · 적용을 통한 잠재능력 신장”. 교육인적자원부지정 영재교육 정책연구학교 보고서.
- 전경원(2000). *한국의 새천년을 위한 영재교육학*. 서울: 학문사.
- 전남대학교(2002). 과학영재교육원 선발 및 운영 안내서.
- 조석희(1996). “일반학교에서의 영재교육방법: 속진과 심화”. *영재교육연구*, 6(1), 31-51.
- Landrum, M. S.(2002). *Consultation in gifted education*. Mansfield Center, CT: Creative Learning Press.
- Renzulli, J. S., & Gentry, M. & Reis, S. M.(2003). *Enrichment clusters*. CT: Creative Learning Press.
- Renzulli, J. S., & Reis, S. M.(1997). *The schoolwide enrichment model: A how to guide for educational excellence*. Mansfield Center, CT: Creative Learning Press.
- Renzulli, J. S., & Reis, S. M.(1997). *The schoolwide enrichment model: A how to guide for educational excellence*. Mansfield Center, CT: Creative Learning Press.
- Renzulli, J. S., & Reis, S. M., & Burns, D. E.(1992). *Curriculum compacting*. Mansfield Center, CT: Creative Learning Press.

초등 영재교육의 방법

김 정 휘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교육심리학)

구영철 선생님의 연구는 영재 교육의 목적을 명료화하고 학생 선발, 영재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그 결과의 일반화 방안을 모색, 연구한 논문으로서 합목적적인 연구임을 서두에 명시했는데, 많은 노력과 수고가 엿보이지만 전체적인 맥락상에서 연구자의 의도가 분명히 설득력있게 전달되는 데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이 된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IQ가 높거나 학교 성적이 우수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주장이다. 영재교육 전문가들이 영재성 발휘에 지능보다 창의성이나 많은 여러 가지 심리학적 변인들의 기여도가 더 많다는 주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력의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찬란한 문화 문명의 발달, 과학적, 창의적 업적도 지력의 성과이며 지력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과학·문명사가 들은 지적하고 있다.

영재교육을 이제 막 도입해서 시작하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수학·과학 분야에만 치우쳐서 운영되고 있다. 향후에는 다양한 분야로 범위를 넓혀 영재 교육이 시도 되어야 한다는 연구자의 지적(2)에 공감한다.

II. 초등 영재교육 운영 형태와 특징

具永喆선생은(표1)에서 초등학교 운영 형태와 특징을 설명했는데 영재 교육 전문가 여러 사람이 제안한 교육과정 모형 중 우리 초등학교 현실을 고려하여 어느 것을 원용하여 적용해 보았는데 그 현황과 결과를 제시할 수 있었다면 연구자의 노고를 설득력있게 전달하는데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Renzulli의 심화학습 3단계 모형을 소개하기는 했으나 이 모형을 연구자가 활용한 것 같지는 않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모형이 1, 2, 3형에서 다루는 내용 범주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학급 단위가 아니라 학교 전체 심화 교육 모형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영재 교육을 받은 아동 자신과 그 부모의 소감(긍정적/부정적 느낌과 기대)을 소개하는 것이 영재 교육의 효과를 진솔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영재학생들의 정서, 사회성, 미성취영재 문제, 선발에 따르는 오류나 판별 도구나 절차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의견 제시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4. 초등 영재 교육의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개발의 원칙, 특성, 문제점, 운영을 구체적으로 관련 설명을 했는데 어렵게 생각되는 것은 교육자료 제작과 영재교육 담당 교사의 자질과 연수 방안에 관한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 또 소규모 학교나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서 영재 교육 운영 방안에 관해서 너무 가볍게 언급하신 부분도 어렵게 생각한다.

강원도를 비롯한 많은 지역이 농어촌 산간벽지학교, 소규모 학교사 많은 것이 현실인데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산간벽지 학교형, 소규모 학교형 영재교육과정 모형이 연구·개발되기를 기대한다.

연구자는 결론 부분에서 초등 영재 교육의 활성화와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일인 교육화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울러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현재 또는 앞으로 영재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께서 장인 정신과 Pro 의식을 갖고 인사상, 어떤 유족을 뿌리치고 오로지 평생 영재 교육 전문가가 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초심을 유지하면서 초등 영재 교육 발전에 열정과 노고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그 외에 연구자가 참고문헌에서 참고한 자료이외에 더 많은 자료가 출판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여러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영재 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소양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영재교육의 목적은 우수한 학생을 더 우수한 인재가 되도록 자극, 기회, 도전을 제공하는 것이며, 아울러서 엘리트보다 인간미있는 사람이 되는 것 즉, 인·재·덕(仁재덕) 재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덕이 있는 인물이 되도록 하는데, 영재 교육의 목적과 의의가 있다.

‘초등 영재교육의 방법’에 대한 토론

강호감 (경인교육대학교)

‘초등 영재교육의 방법’에 대한 토론

김홍원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실)

발표자는 초등 영재교육이 본질을 추구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학생 선발, 영재교육기관의 시간 운영, 영재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전반적 운영의 면에서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초등 영재교육이 자리매김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발표자가 제시한 방안들을 문제 영역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초등 영재학생의 선발과 관련하여

발표자는 현재의 선발은 짧은 시간에 집단 지필고사를 통해 많은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기보다 평등성에 치중하고 있으며, 학생의 능력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고, 학부모 사교육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담임 교사의 추천을 받지 못하는 데서 학부모와 교사간에 갈등이 유발되고 있으며, 지역 공동 영재학급의 경우, 학교간에 비교육적인 경쟁이 유발되고, 학생의 능력이 아니라 학교나 학부모의 교육열 차이에 의해 선발되는 학생 비율이 달라지는 문제점들을 유발한다고 지적하였다.

발표자는 대안적 선발 방법으로 오랜 동안 학생을 관찰하여 정확히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교사의 추천 비율을 늘리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발표자는 선발대상자의 80%는 객관적 검사로, 20%는 교사 추천에 의해 선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교사 추천의 경우, 근거자료를 영재교육대상자선정추천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였다.

2. 초등 영재교육의 시간 운영과 관련하여

발표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공동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이 학생들의 많은 이동 시간과 안전사고의 가능성, 관련 학교간의 학사일정 조정 어려움, 학교간의 우열 평가 잣대 제공, 학생과 지도교사간의 평상시의 의사소통 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대안적 방법으로 36학급 이상의 학급을 가지는 학교에 단위학교 영재학급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발표자는 단위학교 영재학급이 영재교육의 본질에 적합한 교육을 할 수 있고, 학교 업무 부담을 줄이며, 재량활동과 계발활동 시간을 이용해 학생들이 탐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유리하다고 하였다.

3. 초등 영재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발표자는 현재의 프로그램이 수학, 과학에 치중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된 프로그램의 주요 모형인 삼부심화학습이 준비와 시행상에 어려움이 있고 수학교과외의 경우 적용이 쉽지 않으며, 간학문적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개인차를 잘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발표자는 대안으로 언어, 사회 영역의 프로그램 개발, 영재교육 관련 교사간의 팀티칭, 간학문적 프로그램 개발, 자기주도적인 수준별 프로그램 개발, 속진과 심화가 조화를 이루되 심화에 치중한 프로그램 개발, 방학 중 캠프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협동심과 동료의식 신장을 제안하였다.

4. 전체적 운영과 관련하여

발표자는 초등 영재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영재교육 담당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학부모 연수, 교육청에 영재교육 전담 부서 설치, 자생적 영재교육 담당 교사 연구회 활성화 및 전국적 협력 체제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발표자가 제시한 방안들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좀더 고려해 보아야 할 몇 가지 점에 대해 토론을 하고자 한다.

1. 영재교육대상자 중 일정 비율을 교사 추천에 의하여 해야 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지필고사로 측정하기 어려운 창의성과 과제집착력을 지닌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안의 실천을 위해서는 일반 교사들이 영재성에 대해 이해를 하여야 한다. 잘못하면 교사의 편견(예: 행동이 교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창의적 생산성을 지닌 학생보다는 모범적인 학업 영재성을 지닌 학생을 영재라고 판단)에 의해 잘못된 추천, 선발이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교사들이 학생의 행동을 보다 타당하고 신뢰롭게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사 추천에 의한 선발은 충분한 사전 준비와 매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 해야 한다. 학생들의 능력이나 실력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현재의 평가 제도에서, 이런 준비가 철저히 잘 안되면, 민원 소지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분한 연구를 한 후, 시행해 볼 가치가 있다고 있다고 판단된다..
2. 지역공동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36개 학급 이상의 학교에서 단위학교 영재학급을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 방안은 좀더 재고할 여지가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교육에 전문성을 지닌 교사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둘째, 여건이나 준비가 아직 미흡한 상태에서 영재교육이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지나친 확대는 교육의 질 저하 및

행정적 지원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셋째, 단위학교 교사들에게 많은 업무 부담을 줄 수 있다. 넷째, 앞에 제시한 문제로 인해 질 높은 영재교육이 아니라 느슨한 심화 교육의 형태로 영재교육이 이루어지기 쉽다. 대단위 학교에 영재학급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면, 학부모들이 적은 규모의 학교를 선호하지 않아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영재교육이 집중적이고 밀도있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보다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보다 느슨한 심화된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논의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는 여러 여건 상 우리나라는 전자의 영재교육 정책 방향을 취하고 있다.

현재 지역공동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이 지닌 문제점은 지역 공동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의 수를 늘리거나 운영 방안을 개선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당분간은 영재교육원과 지역공동 영재학급을 중심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삼부심화학습 모형은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 개인/집단적으로 수행되는 전문가적인 탐구 프로젝트 과정의 수행, 창의적인 산출물의 생산, 청중 앞에서의 발표 등의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영재교육의 특성을 많이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 모형에 입각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영재교육 방법은 내용, 활동의 성격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삼부심화학습 모형이 영재교육의 거의 유일할만한 교수-학습 방법 모형으로 간주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영재교육이론에서 제시되는 다른 교수-학습 모형이나 방법, 기존의 교과에서 중요하게 간주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들도 영재교육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이런 것들을 적용한 프로그램 개발도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4. 영재교육의 목표는 창의적 생산능력, 도덕성,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의 함양이다.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는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높은 자아존중감, 학습 동기, 자기 효능감과 같은 정의적 태도를 기반으로 하여 신장될 수 있다. 김홍원의(2003)¹⁾에 의하면 우리나라나 초등학교 영재학생들은 지적인 능력(창의성, 상위인지, 논리적 사고력 등)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신장되나, 자아개념(학업자아, 사회자아), 자아존중감, 내적 동기, 동기 특성, 학습 특성, 창의적 특성 등과 같은 정의적 성향은 학년이 올라가도 거의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많은 연구 결과는 영재 학생의 장래 성취에는 지적인 능력보다는 자신감, 협동력, 과제집착력 등과 같은 정의적 성향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고 있다. 초등

1) 김홍원, 윤초희, 김현철, 윤여홍(2003), 초등 영재학생의 지적·정의적 특성 및 지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3, 출간예정.

학생 단계에서는 지적인 능력의 함양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호기심과 동기, 자신감, 과제 집착력과 같은 정의적 특성의 함양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영재교육에서는 지적인 영역의 프로그램만이 개발되어 있고, 정의적 특성의 함양이나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분야에서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5. 이 글에서 사용된 ‘평등성’의 의미가 확실치 않다. 영재선발에서 평등성(기회 균등)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하나, 여기서의 평등은 성, 사회적 계층이나 신분과 관계없이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영재선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필요하다. 영재교육대상자 선발과정에서, 영재교육의 의미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함이 없이, 능력이 없어도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등은 아닐 것이다.

초등학교 시기는 학습에 대한 호기심과 동기, 학업적 자아개념이 싹트고 형성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영재성을 지닌 학생들이 능력에 부합되는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면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학교 생활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미성취 영재아나 문제아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영재 학부모들의 68.5%는 초등학교 이전에 자녀의 영재성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김홍원의, 2003). 영재아라도 1-3학년의 저학년 때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잃으면, 학습 결손이 누적되어 이후에 영재성을 발휘하는데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일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학년까지 점진적으로 영재교육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전체 영재교육 체제와 방향, 유아교육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저학년까지는 통합적 사고가 지배적이고, 고학년부터 보다 분화된 교과적 사고가 발달하기 시작하지만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사고가 완전히 분화되고, 자신의 적성 분야가 완전히 발달하고 정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또 초등학교 시기에 세분화된 영재교육만을 시키는 것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점들에 대한 깊은 이론적, 실천적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초등학교 때의 이상적인 영재교육 모습은 보다 깊고 광범위한 이론적·실천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주의 깊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